

알레포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에 대한 비교 연구

— ‘네비임’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절을 중심으로 —

권성달*

1. 들어가는 말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우리에게 성서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동안 원본에서 필사하고 또 필사하여 전수되어 온 필사본들만 존재할 뿐이다. 이 필사본들은 오랫동안 수많은 서기관들과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 전수되어 왔다. 이들은 성서의 모든 절과 단어와 심지어 알파벳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일일이 세었고, 성서 각 권 한 가운데 기록된 구(phrase)를 표시하였으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구의 빈도수를 일일이 세어 여백에 표시하는 등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천 개의 마소라 사본들 중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티베랴 마소라 사본으로 알려진 ‘아하론 벤-모셰 벤-아쉐르(Aharon ben-Moshe ben-Asher)’ 가문에서 필사한 사본들로서, 카이로 사본(895년), 알레포 사본(930년), 대영박물관 사본(950년), 레닌그라드 사본(1008년) 등이 있다.¹⁾

오늘날 구약학계에서 기본 텍스트로 사용하는 히브리어/아람어 본문은 레닌그라드 사본(the Leningrad Codex B19A)이다. 20세기의 대표적인 히브리어 성서 간행물인 BHK(Kittel's Biblia Hebraica, 1937년) 3판부터 BHS

*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에서 성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조교수. sungdal61@hanmail.net.

1) 알레포 사본은 오경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역사서, 선지서, 성문서 중에는 부분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대영박물관 사본에는 오경만 있고, 카이로 사본에는 예언서만 있다.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77년)는 물론, 1969년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의 주도 아래 시작된 ‘히브리어 구약 성서 본문 프로젝트’(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의 연장선으로 1990년 이래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y)의 주관 하에 시행되고 있는 BHQ(Biblia Hebraica Quinta)에서 사용하는 기본 텍스트는 모두 레닌그라드 사본이다.²⁾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시기에 필사된 레닌그라드 사본이 구약학계에서 사용하는 기본 텍스트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약 본문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또 하나의 사본인 알레포 사본은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발견된 사본을 지칭하는 것이다. 레닌그라드 사본과 함께 이 사본은 벤-아쉐르 가문의 사본으로서 1940년대 초 예루살렘의 히브리대학교 성서학자들이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히브리대학교 총장과 행정부는 카수토(Umberto [Moshe David] Cassuto) 교수와 당시 이스라엘 대통령이었던 벤-쯔비(Izhak Ben-Zvi)를 포함한 특사들을 알레포로 파견하여 알레포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만나 사본 입수 및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했다.³⁾ 1947년, 이스라엘의 국가 독립과 관련된 여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시리아의 알레포에 있던 반유대적인 사람들이 회당에 불을 질렀다. 그 결과 회당에 있던 알레포 사본들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소문과 동시에, 보존되어 어딘가에 숨겨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행히 많은 부분들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수십 년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사본들을 수집하게 되었다. 1956년, 알레포 사본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고트슈타인(M. Goshen-Gottstein)을 중심으로 히브리대학교 성서 프로젝트(The Hebrew University Bible Project)가 시작되었다. 이후 고트슈타인, 카수토, 예이빈(Israel Yeivin) 등이 포함된 여러 학자들이 알레포 사본과 여러 사본을 비교 조사한 결과 알레포 사본이 모든 면에서 마소라 사본의 전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으며 가

2) BHQ는 BHS의 단점을 대폭 수정하고 1947년에 발견된 쿠파란 사본 등을 포함한 풍성한 본문비평장치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성서학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히브리어 성서 간행본 출판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BHQ 편집위원회에서는 당초 2010년에 모든 구약을 담은 BHQ를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에 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 2007년에 신명기, 2008년에 에스라/느헤미야, 잠언, 2010년에 소선지서, 2011년에 사사기, 2015년에 창세기가 출판되었고, 레위기와 욥기가 2017년에 출판되었다. 그 외의 성서는 아직도 작업 중이므로 구약의 모든 성서가 출판되려면 앞으로도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Mordechai Glatzer, ed., *Jerusalem Crown, Companion Volume* (Jerusalem: Old City Press, 2002), 4.

장 정확한 사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⁴⁾

히브리대학교 성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44년이 되는 2000년에 알레포 사본을 기본 본문으로 한 성서를 출간하였고, 2002년에 일반인들의 손에 들어 오게 되었다. 그 성서의 명칭은 ‘케테르 예루살라임(כֶּתֶר יְרוּשָׁלַיִם, Jerusalem Crown)’이며,⁵⁾ 부제로는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성서’(The Bible of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라 한다. 그와 함께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알레포 사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본문비평의 내용을 포함하는 비평본을 만드는 것이다. 이 비평본에는 다양한 고대 역본들(칠십인역, 불가타, 페쉬타, 타르굼, 사아디아 가온[Saadia Gaon]의 아랍어역 등)과 사본들(사해 사본과 카이로, 레닌그라드 등의 마소라 사본들)과 탈무드와 미드라쉬 등의 랍비 문헌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을 포함한다. 알레포 사본을 기본 본문으로 한 예언서의 비평본은 현재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가 출판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출판될 예정이다.

유대인 학자들은 마소라 사본들 중 알레포 사본이 마소라 전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사본이라고 보는 반면, 레닌그라드 사본은 알레포 사본에 비해 실수가 더 많다고 본다.⁶⁾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알레포 사본의 우수성을 언급하지만 사본들 간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은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록이 필요하다. 알레포 사본의 우수성을 언급하는 유대인 학자들은 통계 수치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1937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 성서학계에서 구약 히브리어 텍스트의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레닌그라드 사본과 194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히브리대학교 성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본으로 평가하는 알레포 사본은 모두 가치 있는 중요한 사본들이다. 그러므로 두 사본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및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을 비교 분석하는 본 연구는 좀 더 정확

4) 알레포 사본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한 이들은 다음과 같다: Mordechai Breuer, “The Aleppo Codex as Described by Israel Yeivin”, *Leshonenu* (written in Hebrew) 35 (1971), 85-98, 175-191; A. Shamosh, *Ha Keter, The Story of the Aleppo Codex* (written in Hebrew) (Jerusalem: Ben Zvi Institute, 1987); I. Yeivin, *The Aleppo Codex of the Bible, A Study of Its Vocalization and Accentuation* (written in Hebrew)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8); J. S. Penkower, *New Evidence for the Pentateuch Text in the Aleppo Codex* (written in Hebrew) (Ramat-Gan: Bar-Ilan University, 1992).

5) Mordechai Glatzer, ed., *Jerusalem Crown, Companion Volume* (Jerusalem: Old City Press, 2002).

6) Y. Ofer, “A Fragment of Exodus from the Missing Parts of the Aleppo Codex”, *Pe'amim* (written in Hebrew) 41 (1989), 54. 그에 의하면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레닌그라드 사본은 250개 이상, 카이로 사본은 300개, 짜썬 1053 사본은 약 500개의 단어가 마소라 전통에 맞지 않다고 한다.

하고 신뢰할 만한 성서 본문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성서 본문 읽기와 정확한 성서 해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1.2. 선행 연구

1.2.1. 국내 선행 연구

국내 학자들 중 민영진, 김경래, 김하연 등은 히브리대학교에서 세계적인 구약 사본 학자인 임마누엘 토브(Emanuel Tov)의 지도하에 사본학을 전공했다. 그들 모두는 레닌그라드 사본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했으며, 알레포 사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단지 민영진과⁷⁾ 김경래가⁸⁾ 히브리대학교 성서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했을 뿐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참고할 만한 것은 이익상이 리뷰 형식으로 쓴 논문이다.⁹⁾ 이 논문은 히브리대학교 성서의 편찬 과정과 알레포 사본의 입수 및 복원 과정, 그리고 알레포 사본의 차별성 및 중요성, 히브리대학교 성서의 구성과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한다. 히브리대학교 성서와 알레포 사본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학자들에게는 기본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의 비교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2. 국외 선행 연구

현재 세계적으로 레닌그라드 사본이나 알레포 사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레닌그라드 사본에 대한 연구는 세계성서공회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알레포 사본에 대한 연구는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와 이스라엘의 타 지역에 있는 유대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을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하여 연구한 학자는 국외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단지 브로이어(Mordechai Breuer)만 마소라 사본들 중 알레포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 대영박물관 사본, 카이로 사본, 두 종류의 싸쑨 사본¹⁰⁾ 총 6개 사본에서 단어의 형태가 같

7) 민영진, “히브리어 성서의 비평적 편집: BHK/S와 HUBP”, 「신학사상」 22 (1978), 415-433.

8) 김경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타 연구”, 「성경원문연구」 1 (1997), 118-144.

9) 이익상, “히브리대학교 성서 케테르 예루살라임”, 「성경원문연구」 13 (2003), 157-170.

10) 일명 다마스쿠스 오경(Damascus Pentateuch)으로 불리는 이 사본은 주후 10세기경의 오경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필사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0세기 초 다마스쿠스로 이 사본을 가지고 온 사람의 이름을 따서 싸쑨(David Solomon Sassoon) 사본이라 부르며, 현재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은 사본끼리 묶어 목록을 제공한다.¹¹⁾ 그러나 브로이어가 제공한 목록에서는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에서 단어의 형태가 다른 것들을 따로 분류해 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성서학계에서 구약 히브리어 텍스트의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레닌그라드 사본과 히브리대학교 성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본으로 평가하는 알레포 사본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두 사본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목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약 전체의 어절 수를 조사해 보면 42만 개 이상으로 확인된다.¹²⁾ 이 어절을 모두 비교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데만도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다행히 브로이어가 6개의 사본들에 기록된 어절들을 모두 비교하여 같은 형태끼리 묶는 분류 작업을 하였다.¹³⁾ 그의 목록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브로이어가 제공해 주는 목록은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뿐 아니라 여러 사본들에 쓰여진 어절을 같은 형태끼리 분류만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위해서는 브로이어가 제시한 목록에서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에 쓰여진 어절들 중 차이점이 발견되는 어절들을 선별해야 하는 선 작업을 해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한 성경 텍스트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선지서들이다.¹⁴⁾ 그리고 레닌그라드 사본의 텍스트는 BHS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알레포 사본의 텍스트는 히브리대학교 성서인 ‘케테르 예루살라임’에 있는 것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두 사본에 쓰여진 어절들 중 차이점이 발견되는 어절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차이점이 발견된 어절들 중 자음에서 차

11) Mordechai Breuer, “The Aleppo Codex as Described by Israel Yeivin”, 85-98, 175-191.

12) 바이블웍스 10에 의하면 420,577개, 어코던스 10에 의하면 427,028개 어절로 확인이 된다.

13) 브로이어(Mordechai Breuer)가 분류 작업한 어절의 개수는 약 1,700개 정도이다.

14) 모세오경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알레포 사본이 대부분의 모세오경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성문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카이로 사본이 역사서와 선지서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사본의 차이점을 제공해 주는 브로이어의 목록에는 성문서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가 나타난 어절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어절의 수는 총 311개였다.¹⁵⁾

이 311개의 어절을 특성에 따라 서법에서의 차이,¹⁶⁾ 크티브와 크레에서의 차이, 문자 순서에서의 차이, 기타 어절의 철자 차이 등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311개의 어절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리하였으며, 두 사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느 사본이 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한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11개의 어절을 조사, 분류 및 통계적 분석을 할 때 엑셀을 사용하였다. 엑셀을 통해 어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 각각의 분류 항목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책별, 장/절별, 문법적 차이, 해석의 차이도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각 항목의 수치를 통계표로 작성할 때도 엑셀을 통해 작업하였다. 그리고 두 사본 중 어떤 사본이 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한지를 분석할 때 바이블웍스와 어코던스를 사용하여 각 단어들의 형태적 분포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3.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의 비교 및 평가

3.1. 전체 통계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 중 자음의 차이점이 발견되는 311개의 어절을 특성에 따라 조사,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 간 차이의 특성에 따른 분류

차이의 종류	서법	크티브/크레	문자의 순서	기타	합계
빈도수	267	11	3	30	311
백분율	85.9%	3.5%	1.0%	9.6%	100%

15)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의 모음 기호와 악센트 기호를 조사, 비교해 본 결과 대다수 학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은 두 사본 모두 아하론 벤-아쉐르(Aharon ben-Asher)의 마소라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음과 악센트에 대한 부분은 비교 및 평가의 의미가 없으므로 자음의 차이가 있는 311개만 조사하여 분석했다. 참조, Mordechai Breuer, "The Aleppo Codex as Described by Israel Yeivin", 4; Y. Ofer, "The Jerusalem Crown and Its Editorial Principles", Mordechai Glatzer ed., *Jerusalem Crown Companion Volume* (Jerusalem: N. Ben-Zvi Printing Ltd., 2004), 55.

16) 서법은 완전서법과 불완전서법으로 나누는데 서법 대신 '철자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완전철자법, 불완전철자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것은 서법의 차이로 약 86%이며, 그 다음은 기타 차이가 9.6%, 크티브/크레의 차이가 3.5%, 문자 순서의 차이가 1.0%로 나타났다.

3.2. 서법의 차이

<표 2>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 간 서법의 차이

사본의 종류	레닌그라드 사본	알레포 사본	합계
완전서법	119 44.6%	148 55.4%	267 100%
불완전서법	148 55.4%	119 44.6%	267 100%

다음은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완전서법을, 알레포 사본에서는 불완전서법을 사용한 예이다.

사본의 종류	레닌그라드 사본	알레포 사본
삼상 1:25	קִבְּרָא	קִבְּרָא

다음은 알레포 사본에서는 완전서법을,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불완전서법을 사용한 예이다.

사본의 종류	레닌그라드 사본	알레포 사본
수 15:3	לְפָנָה	לְפָנָה

서법의 측면에서 볼 때 레닌그라드 사본은 불완전서법을 좀 더 선호하고 알레포 사본은 완전서법을 좀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완전서법과 불완전서법의 차이가 과연 사본 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서법의 차이가 책에 따른 차이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책별로 조사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3> 책별로 본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의 서법의 차이

책	레닌그라드 사본		알레포 사본	
	완전서법	불완전서법	완전서법	불완전서법
여호수아	4	5	5	4
사사기	6	15	15	6
사무엘상	11	10	10	11
사무엘하	12	8	8	12
열왕기상	11	12	12	11
열왕기하	23	3	3	23
이사야	23	8	8	23
예레미야	27	15	15	27
에스겔	18	26	26	18
소선지서	13	16	16	13

만일 서법의 차이가 두 사본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각 책별로 본 서법 간의 차이의 비율도 레닌그라드 사본은 불완전서법을 약 10% 더 선호하고, 알레포 사본은 완전서법을 약 10% 더 선호하는 비율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위 표에 의하면 두 사본이 보여준 비율이 반대로 나타난 책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하, 이사야, 예레미야 등이다. 특히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에서는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법의 차이는 두 사본 간의 차이가 요인이 되기보다는 책에 따른 차이가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서법에서 두 사본 간의 차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은 다음 예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사본의 종류	레닌그라드 사본	알레포 사본
겔 16:4	אֲנִי	אֲנִי
겔 16:39	אֲנִי	אֲנִי

동일한 단어를 에스겔 16:4에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이 불완전서법을 사용하고, 알레포 사본이 완전서법을 사용한다. 반면 에스겔 16:39에서는 그 반대

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두 사본에서 서법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예이다.

사본의 종류	레닌그라드 사본	알레포 사본
겔 21:35	מְכֹרְתִיךָ	מְכֹרְתִיךָ

에스겔 21:35에서는 동일한 한 단어에서 레닌그라드 사본은 ‘레쉬’ 다음에 완전서법을 사용했고, 알레포 사본은 불완전서법을 사용한 반면, ‘카프’ 다음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살펴볼 때 서법의 사용에서 완전서법과 불완전서법을 사용하는 것에는 특별한 일관성이 발견되지 않으며,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예들을 볼 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3.3. 크티브/크레의 차이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에서 크티브와 크레의 차이는 총 11군데에서 나타난다.¹⁷⁾ 비록 11군데 밖에 없기는 하지만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모든 곳에서 레닌그라드 사본은 크티브로, 알레포 사본은 크레로 되어 있다. 크티브와 크레에 대해서는 토의가 필요한 본문이 가끔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필사하던 필사자가 보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수정이 필요해 보이거나 전통적인 읽기와 다른 단어가 본문에 있을 경우 그 단어에 모음 표기는 하지 않고 양쪽 여백에 모음 표기가 되어 있는 보다 정확해 보이는 단어의 형태를 기록해 놓고 그 단어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¹⁸⁾

사 52:5 נְאֻם־יְהוָה (מִי־לִי)(מִה־לִּי) וְכָל־צוּרֹתַי (צוּרֹתַי) וְכָל־צוּרֹתַי (צוּרֹתַי) וְכָל־צוּרֹתַי (צוּרֹתַי) וְכָל־צוּרֹתַי (צוּרֹתַי)
 겔 43:11 [תּוֹרְתִי] וְכָל־[תּוֹרְתוֹ] וְכָל־[תּוֹרְתִי] וְכָל־[תּוֹרְתִי]

이사야 52:5에서 ‘크티브’로 되어 있는 의문대명사 **מי**는 문맥상 매우 어색해 보이며, ‘크레’인 **מה**가 훨씬 자연스럽게 보인다. 에스겔 43:11에서도 **צורה**

17) 두 사본 사이에 크티브/크레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곳은 수 3:4; 삿 7:13; 왕상 16:19; 왕하 11:15; 사 52:5; 렘 25:13; 33:26; 49:36; 겔 6:3; 43:11(2번)이다.

18) 참조,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60-63.

19) 여기서 소괄호 () 표시 안에 있는 것은 크티브이며 중괄호 [] 안에 있는 것은 크레를 말한다.

나 תורה 뒤에 1인칭 대명사 접미사가 붙는 것은 문맥상 매우 어색하며, 같은 절에서 이미 וְכָל-צִוְוֹתָיו와 같은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3인칭 대명사가 붙는 ‘크레’ 형태가 올바른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전수 과정이나 필사과정에서 크티브는 서기관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것이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만 나타나고 알레포 사본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알레포 사본보다는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실수나 오류가 더 많이 발견된다는 지적을 뒷받침해 주는 요인이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3.4. 문자의 순서 차이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에서 문자의 순서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총 3개인데 다음과 같다.

<표 4>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 간 문자의 순서 차이

사본의 종류	레닌그라드 사본	알레포 사본
수 21:10	רִאשֹׁנָה	רִאִישָׁנָה
삼상 3:8	בְּשִׁלְשִׁית	בְּשִׁלִּישִׁת
렘 36:1	הַרְבֵּיעִית	הַרְבְּעִית

여호수아 21:10의 경우 두 사본 중에서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רִאשֹׁנָה와 같은 형태가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며, 알레포 사본에서는 רִאִישָׁנָה와 같은 형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두 사본에서 중간에 ‘요드’가 없이 רִאשֹׁנָה와 같은 형태로 총 35회 나타난다. 따라서 두 사본에서 보이는 이 단어의 형태들은 모두 이형(異形)으로 어느 형태가 더 정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사무엘상 3:8의 경우는 레닌그라드 사본(שְׁלִישִׁית)과 알레포 사본(שְׁלִישִׁת)에서 ‘요드’의 위치가 ‘שן’ 다음에 오느냐(레닌그라드) ‘שן’ 이전에 오느냐(알레포)의 차이이다.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שְׁלִישִׁית가 총 22회, שְׁלִישִׁת가 2회(민 28:14; 신 26:12), ‘שן’ 앞과 뒤에 ‘요드’가 나타나는 שְׁלִישִׁית는 8회 사용되었다. 알레포 사본에서는 שְׁלִישִׁית가 총 21회, שְׁלִישִׁת가 3회(민 28:14; 신 26:12; 삼상 3:8), שְׁלִישִׁית가 8회 사용되었다. 즉 이 단어의 형태가 사무엘상 3:8에서만 차이가 발

견되고, 나머지 23군데에서는 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형태가 더 정확한 형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예레미야 36:1의 경우는 두 사본에서 ‘요드’의 위치에 대한 차이가 사무엘 상 3:8과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רַבֵּיעִית가 10회, רַבֵּיעַת가 6회, רַבֵּיעִית가 6회 나타나며, 알레포 사본에서는 רַבֵּיעִית가 11회, רַבֵּיעַת가 5회, רַבֵּיעִית가 6회 나타난다.

따라서 ‘요드’의 위치에 대한 두 사본의 차이를 살펴볼 때 ‘요드’의 위치는 한 자음의 앞에 배치하는 것, 뒤에 배치하는 것, 앞뒤로 모두 배치하는 것 사이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며,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5. 기타 어절의 철자 차이

두 사본의 차이 중 기타 어절에 나타난 철자의 차이는 총 31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이 어절의 차이는 가장 의미 있는 차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어절의 차이점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으나 단어들 간에 공통된 품사들이 발견되어 품사별로 살펴보았다.

<표 5>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 간 기타 어절의 철자 차이

차이의 종류	대명사	동사	전치사	명사	합계
빈도수	1	3	7	19	30
백분율	3.3%	10.0%	23.3%	63.3%	100%

기타 어절의 철자 차이를 품사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더니 명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전치사, 동사, 대명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3.5.1 대명사에서의 철자 차이

두 사본에서 대명사와 관련된 철자의 차이는 인칭대명사(3인칭 여성단수)로 이사야 39:1 한 군데에서만 나타났다. 즉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3인칭 여성단수 인칭대명사가 הִיא로 나타났고, 알레포 사본에서는 הִיא로 나타났다. 3인칭 여성단수 인칭대명사는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총 487회 나타나며, הִיא로 303회(약 62%), הִיא로는 184회(약 38%) 나타난다. 그런데 הִיא로 나타나는 184회 중 183회가 모세오경에서 나타나며(창세기 52회, 출애굽기 8회, 레위기

60회, 민수기 27회, 신명기 36회) 이사야에서만 단 한군데(39:1) 나타난다. 이러한 분포를 통해 살펴볼 때, 이사야 39:1의 3인칭 여성단수 형태는 레닌그라드 사본의 אָנָה보다는 알레포 사본의 אָנָה가 더 정확한 형태라 말할 수 있다.

3.5.2 동사에서의 철자 차이

동사와 관련된 철자의 차이는 3군데에서 나타났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나훔 3:17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קָנָ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알레포 사본에서는 קָנָה로 나타난다. 이 동사는 구약에 총 28회 나타나며, ‘칼’ 유형에서 23회 나타나고, ‘호팔’에서 2회, ‘히필’에서 1회, ‘히트파엘’에서 1회, ‘포알’에서 1회 나타난다. ‘피엘’이 아닌 ‘포알’ 형태는 성경 히브리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형태이다. 또한 ‘칼’ 유형에서 그 동사가 ‘도망하다’, ‘떠나다’의 뜻을 가지므로 이 구절에서 ‘포알’이라는 특이한 형태가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따라서 ‘칼’ 유형을 사용한 알레포 사본이 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2) 사무엘하 18:8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נִפְצָיִת 형태와 나타났고, 알레포 사본에서는 נִפְצָוּת로 나타났다. 레닌그라드 사본의 נִפְצָיִת는 ‘크티브’이고 ‘크레’ 형태는 נִפְצָת이다. 따라서 레닌그라드 사본에 쓰인 형태는 이미 수정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형태임을 마소라 학자들이 지적한 셈이다. 수정해야 할 형태(크레)로 제시된 נִפְצָת는 기본형 פָּץ의 니팔 분사 여성단수에 해당한다. 알레포 사본의 형태인 נִפְצָוּת는 니팔 분사 여성복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동사의 주어인 מְלָחָמָה(여성단수)와 문법적으로 성, 수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동사의 형태는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 모두 문제가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3) 이사야 44:25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יִשְׁכַּל로, 알레포 사본에서는 יִסְכַּל로 나타난다. 두 형태 모두 ‘피엘’ 미완료 3인칭 남성단수 형태인데, 기본형 첫 자음에서 ‘썬’과 ‘싸메호’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리석다’는 뜻을 가진 동사 יִסְכַּל을 기본형으로 하는 동사의 형태는 총 8회 등장하는데, 그 중 7군데에서는 יִסְכַּל로 나타나

고 이곳에서만 שָׁכַל로 나타난다. 문제는 동사 שָׁכַל의 뜻이 ‘지혜롭다’이므로 שָׁכַל과는 정반대의 뜻이라는 점이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썬’과 ‘짜메흐’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이곳의 경우는 그 의미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본문의 문맥을 살펴볼 때 ‘지혜로운 자들’(חֲכָמִים)을 ‘어리석게’ 하는 것이므로 레닌그라드 사본보다는 알레포 사본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3.5.3 전치사에서의 철자 차이

전치사와 관련된 철자의 차이 7개 중 전치사 ‘엘’(אֶל)에서 4개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베인’(בֵּין), ‘에트’(אֶת)/‘엘’(אֶל), ‘베’(בֶּ) / ‘케’(כֶּ)에서 각각 1개씩 나타난다.

전치사 ‘엘’(אֶל)의 경우 2개는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אֶלֶּאֶל로, 알레포 사본에서 אֶלֶּאֶל로 나타나며, 2개는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אֶלֶּאֶל로, 알레포 사본에서 אֶלֶּאֶל로 정반대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형태에서는 어떤 사본이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지 평가할 수 없다. 실제로 이 두 형태는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며, 두 사본 모두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אֶלֶּאֶל이 139개, אֶלֶּאֶל이 29개로 나타난다.

전치사 ‘베인’(בֵּין)의 경우 호세아 13:15에서 레닌그라드 사본은 ‘벤’(בֵּין)으로 나타나며, 알레포 사본은 ‘베인’(בֵּין)으로 나타난다. 그 두 형태가 성경 히브리어 시대 때 모두 ‘벤’으로 발음되었다고 하더라도 표기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어야 한다. ‘요드’ 없는 בֵּין은 전치사가 아닌 명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둘의 표기에서는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알레포 사본이 레닌그라드 사본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말라기 3:16에서 레닌그라드 사본은 ‘에트’(אֶת)로 나타나고 알레포 사본은 ‘엘’(אֶל)로 나타난다. ‘피엘’로 사용된 동사 ‘הִבִּיר’ 다음에는 ‘엘’(אֶל)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직접목적어 표시인 ‘에트’(אֶת)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매우 어색하다. 또한 칠십인역에서도 히브리어 전치사 ‘엘’(אֶל)에 대응되는 전치사 πρὸς가 사용된 것을 볼 때 레닌그라드 사본보다 알레포 사본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사무엘하 7:22절에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전치사 ‘베’(בֶּ)로 나타나고, 알레포 사본에서 전치사 ‘케’(כֶּ)로 나타난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당신 외에는 하나님ی 없습니다.”라는 문장에서 “모든 것에 따르면”에 해당하는 전치사구가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בֶּכֶּ, 알레포 사본에서

는 כָּלְּ로 나타난다. ‘-에 따라’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베’보다는 ‘케’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치사 ‘베’도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알레포 사본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3.5.4 명사에서의 철자 차이

기타 어절의 철자 차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명사의 차이이다. 명사에 관련된 철자의 차이를 세분화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이고, 자음 순서의 차이가 4개, 수(단수/복수/쌍수)의 차이가 5개, 그리고 명사 표기에서의 차이가 10개로 나타난다.

(1) 하나님의 이름에서의 차이

사무엘하 7:22절에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יהוה אֱלֹהֵי로 나타나고, 알레포 사본에서 יהוה אֱלֹהִים으로 나타난다. 이 구절 외에 구약에서 יהוה אֱלֹהִי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총 40회이고 יהוה אֱלֹהֵי로 나타나는 경우는 본 구절을 포함하여 총 293회이다. יהוה אֱלֹהֵי라는 표현은 사무엘하에서만 7회 나타나지만 יהוה אֱלֹהִים이란 표현은 단 한 차례만 나타난다. 칠십인역을 살펴보면 יהוה אֱלֹהֵי에 대응하는 표현은 ‘κύριέ μου κύριε’이고 יהוה אֱלֹהִים에 대응하는 표현은 ‘κύριε ὁ θεός’인데, 사무엘하 7:22에서는 ‘κύριέ μου κύριε’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표현은 알레포 사본보다는 레닌그라드 사본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음 순서에서의 차이

자음의 순서에서 두 사본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4개인데, 모두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며(겔 17:6; 31:8, 12, 13) ‘가지’를 뜻하는 פֶּאֶרֶה라는 단어에서 나타난다. 4개 모두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פֶּאֶרֶה나 פֶּאֶרֶת로 나타나고, 알레포 사본에서는 פֶּאֶרֶה나 פֶּאֶרֶת로 나타난다. 즉 ‘알레포’와 ‘레쉬’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두 사본에서 총 7회 등장하는데²⁰⁾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모두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료만을 가지고 이 단어의 순서가 알레포 사본보다는 레닌그라드 사본이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알레포 사본 내에서 그들의 자음 순서가 함께 등장하기 때문이다. 에스겔 31:5, 6에서는 פֶּאֶרֶת로 나타나고, 에스겔 31:8, 12, 13에서는 פֶּאֶרֶה나 פֶּאֶרֶת로 나타난

20) 두 사본 간에 차이를 보이는 4구절 외에 겔 31:5, 6; 사 10:33에서 나타난다.

다. 이렇게 인접한 구절들에서 두 형태가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레포 사본에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 두 형태는 발음이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수(단수/복수/쌍수)의 차이

명사의 수(단수/복수)에서 철자의 차이는 5군데에서 나타난다. 먼저 사사기 16:23을 보면 레닌그라드 사본은 אֲנִיכֵינוּ로 복수로 되어 있고, 알레포 사본은 אֲנִיכֵנו로 단수로 되어 있다. 이 구절의 문맥에서 ‘우리의 원수’는 ‘삼손’을 말하므로 ‘우리의 원수들’이라는 복수는 문맥에 맞지 않는다. 칠십인역은 단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는 알레포 사본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사무엘하 14:31에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이 עֲבָדְךָ(당신의 종)로 단수, 알레포 사본이 עֲבָדְךָ(당신의 종들)로 복수로 되어 있다. 그 단어 바로 앞에 있는 동사가 הִצִּיתוּ(그들이 불을 질렀다)로서 복수이므로 이 구절에서도 복수로 되어 있는 알레포 사본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²¹⁾

사무엘하 11:24에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이 עֲבָדְךָ(당신의 종)로 단수, 알레포 사본이 עֲבָדְךָ(당신의 종들)로 복수로 되어 있다. 여기서 ‘당신의 종’이란 ‘우리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수가 문맥에 더 어울린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이 알레포 사본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²²⁾

이사야 20:2에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이 רַגְלֶיךָ(당신의 발들/두 발)로 복수 혹은 쌍수, 알레포 사본이 רַגְלֶךָ(당신의 발)로 단수로 되어 있다. 구약 전체에서 רַגְלֶיךָ로는 14회, רַגְלֶךָ로는 22회 등장하고 ‘그의 발’/‘그의 두 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도 רַגְלֶךָ와 רַגְלֶיךָ가 모두 비슷하게 등장한다. 이로 볼 때 이 구절에서는 쌍수와 단수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한 형태인지 평가하기 어렵다.²³⁾

사무엘하 15:3의 경우 레닌그라드 사본이 דְבָרְךָ(당신의 말)로 단수, 알레포 사본이 דְבָרְךָ(당신의 말들)로 복수로 되어 있다. 이 경우도 이사야 20:2의 경우처럼 단수로 39회, 복수로 34회 등장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한 형태인지 평가하기 어렵다.²⁴⁾

21) 이 구절의 칠십인역은 알레포 사본과 일치한다.

22) 이 구절의 칠십인역은 레닌그라드 사본과 일치한다.

23) 이 구절의 칠십인역은 레닌그라드 사본과 일치하지만, 아람어 타르굼역은 알레포 사본과 일치한다.

24) 이 구절의 칠십인역은 알레포 사본과 일치하고, 아람어 타르굼역은 레닌그라드 사본과 일치한다.

(4) 명사 표기에서의 차이

기타 자음의 차이는 총 10개이며, 모두 표기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 10개 중 9개는 끝 자음이 서로 다른 경우, ‘요드’, ‘알레프’, ‘헤’의 포함 여부 등의 근소한 차이라 할 수 있다.

열왕기하 12:22의 고유명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יהוֹזָבָבִּי로 나타나고, 알레포 사본에서는 יְהוֹזָבָבִּי로 나타난다. 즉 끝의 두 문자에서 יָבִ-와 יְבִ-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이 구절 외에 יהוֹזָבָבִּי로 나타나는 곳은 두 사본에서 총 10회이다.²⁵⁾ 본 구절에 나오는 사람은 다른 구절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칠십인역과 아람어 타르굼역은 모두 알레포 사본의 인명을 지지한다. 따라서 본 구절의 고유명사는 알레포 사본이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근소한 차이라 할 수 있는 9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무엘하 6:6과 사무엘하 23:11의 경우는 끝 자음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알레프’로 끝나고, 알레포 사본에서는 ‘헤’로 끝난다. ‘알레프’와 ‘헤’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성경 아람어에서는 매우 흔한 일인데, 알레포 사본에서 ‘알레프’ 대신 ‘헤’를 사용하는 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사무엘하 6:3과 6:6에 나오는 ‘웃사’의 경우 레닌그라드 사본은 모두 ‘알레프’를 사용했지만, 알레포 사본은 ‘헤’와 ‘알레프’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했다. 사무엘하 23:11의 שָׁמַיִ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열왕기하 14:7과 이사야 22:5에 쓰여진 ‘골짜기’를 뜻하는 명사에 대해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알레프’와 함께 יָאִי로 표기를 했고, 알레포 사본에서는 ‘알레프’가 없는 יֵי로 표기했다.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이 명사는 총 36회 등장하는데, ‘알레프’와 함께 31회, ‘알레프’ 없이 5회 등장한다. 이 두 형태 역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스가랴 14:5를 보면 אֶל-אֲצִלִּים וְיִהְיֶה בְּיַד-הָרִי בְּיַד-הָאֱלֹהִים과 같이 ‘알레프’를 포함한 형태와 포함하지 않는 형태가 모두 등장한다.

사사기 4:11과 사사기 12:12와 스가랴 14:4의 경우 명사에 ‘요드’를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차이이다.

25)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에서 יהוֹזָבָבִּי로 나타나는 곳은 대상 12:5, 21(x2); 대하 31:13; 35:9; 스 8:33; 10:22, 23; 느 8:7; 11:16이다.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	알레포 사본
삿 4:11	אלון	אלון
삿 12:12	אלון	אלון
스 14:4	היתים	היתים

세 구절에서 표기에 차이를 보인 단어는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모두 ‘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알레포 사본에서는 ‘요드’를 포함한다. 사사기 4:11의 경우 ‘참나무’를 뜻하는 אלון이라는 단어는 항상 ‘요드’ 없이 등장하므로 레닌그라드 사본의 표기가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사사기 12:12의 경우 ‘엘론’이라는 인명으로 사용되었는데, 어느 사본이 더 정확한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바로 앞 절인 사사기 12:11에서는 두 사본 모두 ‘요드’를 포함한 אלון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올리브나무’를 뜻하는 단어인 תית는 총 38회 등장하는데, 스가랴서 14:4에서 היתים 형태로 ‘요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한 번 나타나고 나머지 37회는 모두 ‘요드’를 포함한 형태로 나타난다. 스가랴 14:4의 היתים의 경우 레닌그라드 사본의 표기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절에서 한 번은 ‘요드’ 없이, 한 번은 ‘요드’를 포함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8:28절에서 레닌그라드 사본은 היתים로 ‘헤’와 함께 나오고, 알레포 사본은 היתים로 ‘헤’ 없이 나타난다. 인명인 ‘하사엘’이 두 사본에 총 23회 나타난다.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헤’ 없이 17회 나타나고, ‘헤’와 함께 6회 나타난다. 알레포 사본에서는 ‘헤’ 없이 18회, ‘헤’와 함께 5회 나타난다. 즉 본 구절에서만 두 사본 사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단어는 열왕기하 8장에서만 7회 나오는데, 레닌그라드 사본은 ‘헤’ 없이 2회, ‘헤’와 함께 5회 나오고 알레포 사본은 ‘헤’ 없이 3회, ‘헤’와 함께 4회 나온다. 따라서 이 두 형태는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거의 시도하지 않은 연구 분야로서 성서 학계에서 구약 히브리어 텍스트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레닌그라드 사본과 히브리대학교 성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본으로 평가하는

알레포 사본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조사, 비교, 분석하여 두 사본 중 어느 사본이 보다 더 정확하고 꼼꼼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브로이어의 목록을 바탕으로 두 사본에 쓰여진 어절들 중 자음에서 차이가 나타난 311개의 어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어절들을 특성에 따라 ‘서법에서의 차이, 크티브와 크레에서의 차이, 문자 순서에서의 차이, 기타 어절의 철자 차이’ 등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류, 정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레닌그라드 사본이 높은 정확도를 갖는 경우는 총 2개이다:

기타 어절의 철자 차이 중 명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철자에서 1개, 기타 어절의 철자 차이 중 명사에서 수와 관련된 철자에서 1개.

(2) 알레포 사본이 높은 정확도를 갖는 경우는 총 18개이다:

크티브/크레 10개, 기타 어절의 철자 차이 중 8개(대명사 1개, 동사 2개, 전치사 2개, 수의 차이 2개, 기타 자음의 차이 1개).

(3) 두 사본 모두 문제인 경우는 총 1개이다:

기타 어절의 철자 차이 중 동사의 차이에 해당하는 사무엘하 18:8절.

(4) 정확도를 평가하기 힘든 경우는 모두 290개이다:

서법 267개, 문자의 순서 3개, 기타 어절의 철자 차이 중 20개(전치사 5개, 명사 4개, 수의 차이 2개, 기타 자음의 차이 9개).

전체적으로 알레포 사본이 레닌그라드 사본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알레포 사본의 우수성을 언급하는 많은 유대인 학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레닌그라드 사본과 비교해 볼 때 알레포 사본 중에서도 명백한 실수가 보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연구의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²⁶⁾

또한 유대인 학자들은 레닌그라드 사본을 평가할 때 역사서와 선지서에 서만 250군데 이상에서 실수가 발견된다고 말한다.²⁷⁾ 그러나 본 연구에 의하면 단지 19군데에서만 명백한 실수가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레닌그라드 사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대인 학자들

26) 유대인 학자들은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알레포 사본의 실수가 2군데라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3군데로 확인되었다. Mordechai Breuer, *The Aleppo Codex and The Accepted Text of the Bible* (written in Hebrew) (Jerusalem: Mosad Harav Kook, 1976), 6.

27) Ibid.

의 평가는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변방에 위치해 있는 사본학 연구를 위한 자극제와 촉진제가 되며, 사본학의 중요성과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더욱 증대시켜 국내 성서학자들이 후속 연구를 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필두로 하여 카이로 사본과 대영박물관 사본은 물론 사해 사본에 대한 후속 연구를 계속 진행시킨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 성서학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Keywords)

구약 사본, 마소라 사본, 알레포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 히브리대학교 성서.
Old Testament Manuscript, Masoretic Manuscript, Aleppo Codex, Leningrad
Codex, The Hebrew University Bible.

(투고 일자: 2018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8년 8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8년 10월 29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6.
- 김경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타」 연구”, 「성경원문연구」 1 (1997), 118-144.
- 민영진, “히브리어 성서의 비평적 편집: BHK/S와 HUBP”, 「신학사상」 22 (1978), 415-433.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 민영진, “「BHQ」의 서문, 부호와 약자, 용어 정의와 해설 번역”, 「성경원문연구」 4 (1999), 121-161.
- 이익상, “히브리대학교 성서 케테르 예루살라임”, 「성경원문연구」 13 (2003), 157-170.
- Allony, N., “Complete Copies of the Aleppo Bible Codex in Jerusalem and Bialystok”, *Beit Mikra* (written in Hebrew) 77 (1979), 193-204.
- Allony, N., “Ben Maimon, Ben Asher, Ben Buya’a and the Aleppo Codex”, *Tarbiz* (written in Hebrew) 50 (1981), 348-370.
- Beit-Arie, M., “A Lost Leaf from the Aleppo Codex Recovered”, *Tarbiz* (written in Hebrew) 51 (1982), 171-174.
- Ben-Sasson, M., “The Bible and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Mordechai Glatzer, ed., *Jerusalem Crown, Companion Volume* (written in Hebrew), Basel: The Karger Family Fund; Jerusalem: N. Ben-Zvi Printing Ltd., 2004, 3-8.
- Ben-Zvi, N., “The Making of a Book: Producing the Jerusalem Crown”, Mordechai Glatzer, ed., *Jerusalem Crown, Companion Volume* (written in Hebrew), Basel: The Karger Family Fund; Jerusalem: N. Ben-Zvi Printing Ltd., 2004, 9-24.
- Breuer, Mordechai, “The Aleppo Codex as Described by Israel Yeivin”, *Leshonenu* (written in Hebrew) 35 (1971), 85-98, 175-191.
- Breuer, Mordechai, *The Aleppo Codex and The Accepted Text of the Bible* (written in Hebrew), Jerusalem: Mosad Harav Kook, 1976.
- Cohen, M., “The Victory of the Ben-Asher Text: Theory and Reality”, *Tarbiz* (written in Hebrew) 53 (1984), 255-272.
- Glatzer, Mordechai, “The Aleppo Codex: Codicological and Paleographical Aspects”, *Sefunot* (written in Hebrew) 19 (1989), 167-276.
- Goshen-Gottstein, M., “Sixty Years of Teaching Bible at the Hebrew University – Directions, Limitations, and Expectations”, M. Bar-Asher, ed., *Studies in Judaica* (written in Hebrew), Jerusalem: Akademon, 1986, 41-49.

- Goshen-Gottstein, M., “The Aleppo Codex and the Rise of the Massoretic Bible Text (written in Hebrew)”, *Biblical Archeologist* 42 (1979), 41-49.
- Houk, C. B., “Statistical Analysis of Genesis Source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7:1 (2002), 75-105.
- Loewinger, D. S., “The Aleppo Codex and the Ben Asher Tradition”, *Textus* 1 (1960), 59-111.
- Moore, D. S., *Statistics. Concepts and Controversies*, 5th ed.,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2001.
- Ofer, Y., “M. D. Cassuto’s Notes on the Aleppo Codex”, *Sefunot* (written in Hebrew) 19 (1989), 277-344.
- Ofer, Y., “A Fragment of Exodus from the Missing Parts of the Aleppo Codex”, *Pe’amim* (written in Hebrew) 41 (1989), 41-48.
- Ofer, Y., “The History and Authority of the Aleppo Codex”, Mordechai Glatzer, ed., *Jerusalem Crown, Companion Volume* (written in Hebrew), Basel: The Karger Family Fund; Jerusalem: N. Ben-Zvi Printing Ltd., 2004, 25-50.
- Ofer, Y., “The Jerusalem Crown and Its Editorial Principles”, Mordechai Glatzer, ed., *Jerusalem Crown, Companion Volume* (written in Hebrew), Basel: The Karger Family Fund; Jerusalem: N. Ben-Zvi Printing Ltd., 2004, 51-60.
- Ofer, Y., *Jerusalem Crown. The Bible of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nd ed., Basel: The Karger Family Fund; Jerusalem: N. Ben-Zvi Printing Ltd., 2004.
- Penkower, J. S., *New Evidence for the Pentateuch Text in the Aleppo Codex* (written in Hebrew), Ramat-Gan: Bar-Ilan University, 1992.
- Shamosh, A., *Ha_Keter, The Story of the Aleppo Codex* (written in Hebrew), Jerusalem: Ben Zvi Institute, 1987.
- Tov, E.,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Tov, E., Talmon, S., and Rabin, C., eds., *The Book of Jeremiah* (written in Hebrew with English introduction), The Hebrew University Bible, Jerusalem: Magnes Press, 1997.
- Yeivin, I., *The Aleppo Codex of the Bible, A Study of Its Vocalization and Accentuation* (written in Hebrew),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8.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Aleppo Codex and the Leningrad Codex:
Focusing on the Syntactic Word with the Difference in ‘Nevi’im’**

Sung-dal Kwo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e Hebrew/Aramaic text used as the basic text in the academia of the Old Testament all over the world today is the Leningrad Codex. The most significant reason why the Leningrad Codex, transcribed in the most recent period, is used as the basic text in the worldwide academia of the Old Testament is because it has the entire main text of the Old Testament. However, biblicists at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showed interest in the Aleppo Codex among the Masoretic manuscripts and began a systematic research by collecting the copies of Aleppo Codex that were scattered around the world through various routes for decades. Many Jewish scholars comparatively studied the Aleppo Codex and other manuscripts, and concluded that the Aleppo Codex best preserves the traditions of the Masoretic manuscripts and is the most accurate. Jewish scholars consider the Aleppo Codex as the most accurate and reliable manuscript, while regarding the Leningrad Codex as a manuscript that includes relatively more errors than the Aleppo Codex. Thus, specific and objective comparative study and analysis are needed on the Leningrad Codex and the Aleppo Codex. If the Leningrad Codex is selected as the basic text just because it includes the entire Old Testament despite its many errors,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it is desirable to use the Leningrad Codex as the basic text in not only Korea but also the world's academia of the Bible study. Moreover, research and analysis are needed in terms of the level of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Aleppo Codex, which is rated highly by the biblicists at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and whether it is highly overrated in some ways.

Mordechai Breuer listed the differences among various Masoretic manuscripts in the historical and prophetic books. This study selected only

the Leningrad Codex and Aleppo Codex among the various manuscripts listed by Breuer and conducted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on 311 cases that showed a difference, after which it analyzed accuracy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As a result, this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1) There are two cases in which the Leningrad Codex is highly accurate: one is in the spelling of the name of God as a noun despite other word spelling differences, and the other is in the spelling of numbers as a noun despite other word spelling differences.

(2) There are 18 cases in which the Aleppo Codex is highly accurate: ten in Ktiv/Qre, eight in other word spelling differences (one pronoun, two verbs, two prepositions, two number differences, and one other consonant difference).

(3) There is one case in which both have problems: In 2 Samuel 18:8, there is a verb difference among other word spelling differences.

(4) There are 290 cas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evaluate reliability: 267 in mood, three in the order of characters, 20 in other word spelling differences (five prepositions, four nouns, two number differences, nine conson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leppo Codex generally showed higher accuracy compared to the Leningrad Codex, and thus the evaluation of Jewish scholars stating the excellence of the Aleppo Codex is positive. The negative evaluation of the Leningrad Codex by Jewish scholars tends to be immoderate, though.